

(753)

# 조선

주체108  
(2019)

4





## 차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었다.....1

전세계의 관심과 기대속에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 진행.....2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벨남사회주의공화국을 공식친선방문.....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흠모하여.....18

증산의 뜻을 높이 올리는  
발전설비생산기지.....22

함경남도과학기술도서관.....24

김형직사범대학.....26

조종천선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29

인민예술가 리경남.....30

조선의 명산 - 칠보산.....32

민족기약을 장려한다.....36

위너힐장수들.....38

민족의 재보를 찾아.....40

표지: 주체조선의 위용을 떨치며      사진 김혁철

화보 《조선》은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로 발행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3월 10일 최고  
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0호구 제40호분구선거장에서  
선거에 참가하시었다.

오전 11시 김책공업종합대학에 꾸러진 선거장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총장 홍서헌을 비롯한 대학의 일군들을 만나시  
였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며  
조국과 민족의 평화번영을 위한 력사의 새시대를 펼치시고 사회주의  
강국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최대  
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올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선거자들에게 따뜻이 손저어 답례  
를 보내시며 선거장으로 향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었다

제10호구 제40호분구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거표를 받으시고  
대의원후보자인 홍서헌에게 투표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의원후보자와 담화를 나누시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고, 대학이 과학교육사업과 경제의 활성화,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서 우리 당이 제일 믿고있는  
말아들, 나라의 과학교육과 경제건설을 견인하는 기관차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앞으로 일을 더 잘하기 바란다고 뜨겁게 고무  
격려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대학이 차지  
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대학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대학의 교육사업과 과학설비, 정보기술의  
현대화를 위해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글 김필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와  
상봉하시었다. 주체108(2019)년 2월

## 전세계의 관심과 기대속에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트럼프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시었다.  
주체108(2019)년 2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와 또다시 상봉하시고 회담하시었다.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제2차 조미수뇌  
상봉을 앞두고 전세계의 이목은 웰남의 하노이로 집중되었다.

대결과 반목의 악순환을 끝장내고 새롭게 도래한 평화변영의 시대에  
부응하려는 조미최고수뇌분들의 드높은 열망과 진취적인 노력, 비상한  
결단에 의하여 력사적인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었다.

현지시간으로 2월 27일 18시 30분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력사적인 두번째 상봉과 단독회담, 만찬이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체류하신 《멜리아》호텔앞은 이  
세기적인 만남을 취재하고 지켜보기 위해 모여든 기자들과 하노이시민  
들, 관광객들로 북적이며 인파를 이루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용차를 타시고 경호차량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미합중국 대통령과의 상봉장소인 《메트로폴》호텔  
에 도착하시었다.

조미최고수뇌분들께서 상봉하시게 될 《메트로폴》호텔의 《라  
베란다》면담실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미합중국 국기  
가 나란히 걸려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와 8개월만에 또다시 상봉하시고 굳은 악수를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과 두 나라 국기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시었다.

지난해 싱가포르수뇌회담과정과 그 이후 여러차례의 친서교환을  
비롯한 계기들을 통하여 친분을 두터이하신 조미최고수뇌분들께서는

반갑게 인사하시고 덕담을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불신과 오해, 적대적인 눈초리들과  
낯은 관행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였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다  
깨버리고 극복하며 다시 마주 걸어 260일만에 하노이까지 왔으며 이  
시간은 그 어느때보다 많은 고민과 노력, 인내가 필요했던 기간이었  
다고 하시면서 이번 회담에서 모두가 반기는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최선을 다할것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을 다시 만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  
하며 기쁘다고 하면서 우리는 매우 훌륭한 관계를 맺고있으며 이번  
회담이 대단히 성공적인 회담이 될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조미최고수뇌분들께서는 이어 단독회담을 진행하시면서 허심탄회  
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과 단독회담을 마치신  
후 친교만찬을 함께 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외무상 리용호와 미합  
중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 백악관 비서실장대리 마이크 말베이니가  
참석하였다.

조미최고수뇌분들을 모시고 두 나라 인사들이 원탁에 친근하게 둘러  
앉아 화기로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만찬에서는 싱가포르수뇌상봉  
이후 두 나라 관계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룩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되고  
하노이수뇌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전세계의 관심과 기대에 맞게  
회담에서 포괄적이며 획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의견들이 나누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지시간으로 2월 28일  
오전 9시부터 조미수뇌회담장소인 하노이시의 《메트로폴》호텔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트럼프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2월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와 또다시 상봉하시고 단독회담과 전원회담을 진행하시였다.

조미최고수뇌분들께서는 단독회담과 전원회담에서 싱가포르공동성명을 리행하기 위한 역사적인 로정에서 괄목할만 한 전진이 이루어졌다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이에 토대하여 조미관계개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데서 나서는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건설적이고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하시였다.

회담들에서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추동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쌍방이 기울인 노력과 주동적인 조치들이 서로의 신뢰를 도모하고 조미 두 나라사이에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불신과 적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트럼프대통령은 싱가포르공동성명에서 제시한 공동의 목표들을 실행해나가기 위하여 현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청취하시고 그 방도를 진지하게 논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트럼프대통령은 70여년의 적대관계속에서 쌓인 반목과 대결의 장벽이 높고 조미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는 려정에서 피치 못할 난관과 곡절들이 있지만 서로 손을 굳게 잡고 지혜와 인내를 발휘하여 함께 헤쳐나간다면 능히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조미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트럼프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2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트럼프대통령과 또다시 상봉하시고 단독회담을 진행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2월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미최고수뇌분들께서는 두번째로 되는 하노이에서의 상봉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트럼프대통령은 조선반도비핵화와 조미관계의 획기적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긴밀히 련계해나가며 하노이수뇌회담에서 논의된 문제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 나가기로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는 트럼프대통령이 먼길을 오고가며 이번 상봉과 회담의 성과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고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시며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전세계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조미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맞게 발전시키며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의미있는 계기로 되였다.

글 최광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트럼프대통령과 전원회담을 진행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2월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월남사회주의공화국을 공식친선방문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월남사회주의공화국을 공식친선방문하시였다.

현지시간으로 2월 26일 오전 8시 15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타신 전용렬차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여러 성, 도시들을 경유하여 월남의 국경역인 동당역에 도착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속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렬차에서 내리시여 영접나온 월남당 및 정부간부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였다.

국경역에서부터 숙소가 위치하고있는 하노이시에 이르는 수백리 연도에는 수많은 각계층 월남인민들이 겹겹이 줄지어 늘어서 두 나라 기발과 꽃다발을 흔들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3월 1일 주석부에서 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인 웬 푸 쯙동지와 상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환영하는 공식영접의식이 주석부 광장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인 웬 푸 쯙동지사이의 회담이 주석부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조선과 월남의 정치경제형편들이 호상 통보되고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발전시키데 대해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들이 교환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선대수령들의 뜻을 받들어 피로써 맺어진 두 나라, 두 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일관한 립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월남당과 정부가 제2차 조미수외 상봉과 회담의 성과적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진심어린 지지와 훌륭한 방조를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였다.

웬 푸 쯙동지는 월남과 조선과의 친선협조관계는 호지명주석과 김일성주석께서 몸소 마련해주시고 가꾸어주신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이며 월남당과 정부와 인민은 월남의 독립과 민족해방투쟁에 조선이 커다란 지지성원을 준데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인 웬 푸 쯙동지와 상봉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3월

있다고 하면서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언제나 중시하며 두 나라 인민의 리익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두 당,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려는것은 월남당과 정부의 확고한 립장이라고 말하였다.

회담은 시종 동지적이며 허심탄회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3월 1일 오후 월남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수상 웬 쑤언 폭동지, 인민회의 의장 웬 티 김 웅언동지와 각각 상봉하시고 친선적인 담화들을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월남사회주의공화국방문을 환영하여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인 웬 푸 쯙동지가 3월 1일 국제회의센터에서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웬 푸 쯙동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인 **웬 푸 쩡**동지와 회담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3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수상 웬 쉐언 폭동지와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었다. 주체108(2019)년 3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인민회의 의장 웬 리 김 응언동지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누시었다. 주체108(2019)년 3월



와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었다.

연회에서는 웬 푸 쥑동지가 축하연설을 하였으며 이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답례연설을 하시었다.

웬 푸 쥑동지는 김정은위원장동지의 월남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이번 방문은 김일성주석의 1964년 월남방문이후 55년만에 처음으로 되는 방문으로서 월남과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증시하는 조선당과 정부의 립장의 표시로 된다고 말하였다.

웬 푸 쥑동지는 호지명주석과 김일성주석께서 친히 마련하시고

품들여 가꾸어오신 두 나라 당과 국가,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는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내면서 끊임없이 계승발전되어 왔다고 하면서 월남과 조선사이의 외교관계설정 70돐을 앞두고 진행된 김정은위원장동지의 이번 방문이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 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조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두 나라 수령들의 숭고한 심혼이 어리어있고 조선월남친선의 역사를 피로써 새긴 두 나라 력사들의 공동의 념이 깃든 월남을 찾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며 마땅한 도리



라고 하시면서 조선월남친선협조관계를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과 미래를 안겨주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손잡고나아갈 의지를 확인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월남에 대한 첫 방문과 총비서동지와 뜻깊은 상봉을 통하여 김일성동지와 호지명동지에 의하여 맺어지고 다져진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의 생활력과 훌륭한 미래를 확신한다고 하시면서 두 나라 선대수령들께서 물려주신 고귀한 유산인 조선월남친선을 굳건히 지키고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

여나갈 의지를 표명하시었다.

연회는 조선월남친선의 정이 뜨겁게 흘러넘치는 즐겁고 단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연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월남방문을 환영하여 월남예술인들이 특별히 준비한 다채로운 예술공연이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월남당과 정부의 진정어린 따뜻한 환대에 다시한번 사의를 표하시고 웬 푸 쥑동지와 뜨거운 작별의 인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월남사회주의공화국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가 진행되었다. 주체108(2019)년 3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웬 푸 풍동지와 함께 성의있고 특색있는 공연을 진행한 출연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주체108(2019)년 3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웬 푸 풍동지와 뜨거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시었다. 주체108(2019)년 3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호지명주석의 묘에 화환을 진정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3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영웅렬사추모비에 화환을 진정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3월

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3월 2일 오전 호지명주석의 묘에 화환을 진정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호지명주석을 추모하여 목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3월 2일 오전 영웅렬사추모비에 화환을 진정하시고 목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월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을 성과적으로 끝마치시고 3월 2일 하노이시를 출발하시였다.

이날 숙소로부터 전용렬차출발역인 동당역에 이르는 수백리 긴 연도에는 월남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두 나라 기발과 꽃다발을 들고 나와 흔들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뜨거운 마음으로 바래워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방문결과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월남당과 정부와 인민들의 친절하고 극진한 환대에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월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 피로써 맺어지고 온갖 시련속에서 공고화된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힘있게 파시하고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뉴대를 가일층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글 강수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월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을 성과적으로 끝마치시고 출발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3월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흠모하여

조선의 명산 묘향산에 있는 국제친선전람관에는 인류사상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 앞에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경모하여 세계의 수많은 나라 당,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정계, 사회계 인사들이 드린 선물들이 소중한 보물로써 보관되어 있다.



김일성동지는 동방에서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쓰편을 피로써, 무장으로 옹호하여 주신 참다운 프로레타리아국민주의자이며 공산주의 운동의 귀감이십니다. 쓰편이 오늘과 같이 평화적인 환경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할 수 있는것은 김일성동지와 같은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이. 웨. 스탈린  
주체38(194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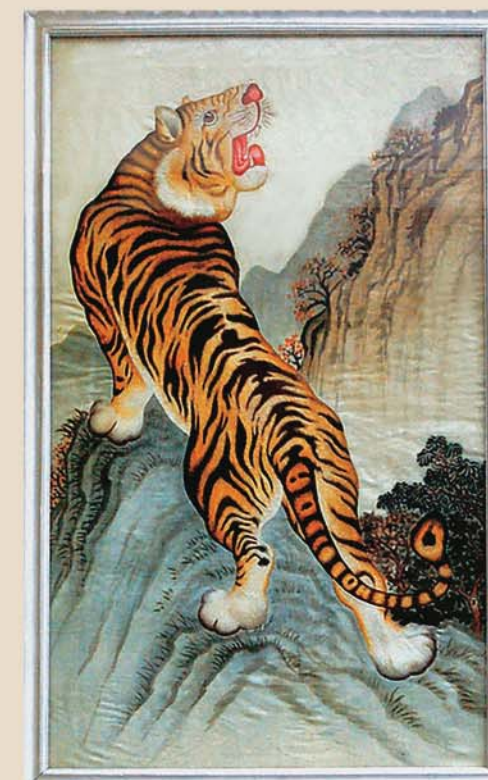
전련맹공산당(불셰비크)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이. 웨. 스탈린 소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내각수상이 주체37(1948)년 12월 30일과 주체39(1950)년 10월 26일에 드린 전망차와 승용차



세계혁명을 돌보실분은 오직 김일성동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김일성동지께서 앞으로는 세계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계속 경도해주실것을 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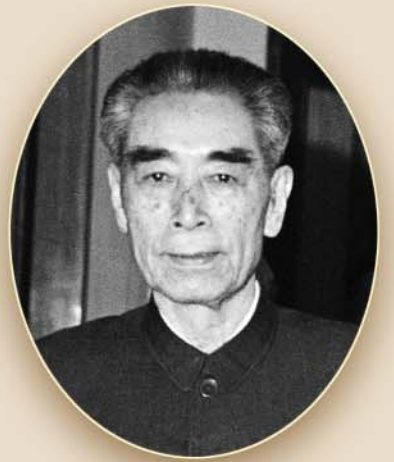


모택동  
주체64(1975)년 4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인 모택동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주체42(1953)년 10월에 드린 수예 《범》

이제는 김일성동지를 뵈옵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세계혁명을 이끌어주실것을 바랍니다.



주은래  
주체64(1975)년 4월



주은래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가 주체47(1958)년 8월 2일에 드린 참대조각 《물위에 떠있는 정각》

월남인민들이 진정으로 높이 존경해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입니다.



호志明



호志明 월남민주공화국 주석이 주체44(1955)년 10월 5일에 드린 은차그릇일식



김일성수상님의 주체사상은 위대하여 세계를 움직이기에  
수상님은 온 세계를 가지고계시는것이나 같습니다.

수카르노  
주체54(1965)년 4월



수카르노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이  
주체54(1965)년 4월에 드린 은식사도구일식



내가 전심으로 김일성주석각하를 위대한  
령처가로 높이 존경하고있으며 조신의 권에  
언제나 서있을것이라는것을 믿어두기 바랍  
니다. 사실 김일성주석은 나를 완전히 매혹  
시켰습니다. 남자가 남자한테 반한것은 나의  
정치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가네마루 싱  
주체80(1991)년 2월

일본 전 부수상인 가네마루 싱 국회 중의원  
의원이 주체80(1991)년 2월 26일에 드린 인형



김일성동지는  
참으로 현명한  
분입니다.  
그이께서 많은  
일을 해놓으셨  
기때문에 다음  
세대들은 할 일이 없을것입니다.

이오씨프 브로즈 띠토  
주체66(1977)년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이오씨프 브로즈 띠토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  
대통령이 주체66(1977)년 8월 25일에 드린 금도금담배갑



나와 나의 동지  
들은 앞으로 조신  
의 혁명위업과 조신  
인민의 용감성과  
창조성 그리고  
위대한 수령이시며  
현명한 지도자이신  
김 일 성 동 지 의  
재능과 인품에 대한  
신뢰자가 될것이라는것을 굳게 확언합니다.

피델 까스트로 루쓰  
주체75(1986)년 3월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인 피델 까스트로 루쓰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이며 내각수상이 주체75  
(1986)년 3월에 드린 악어가죽가방



주 석 각 하 의  
말씀은 끝까지  
진리입니다.  
저 는 주 석  
각하의 예언을  
굳게 믿습니다.

노로돔 시하누크  
주체75(1986)년 6월



노로돔 시하누크  
캄보자왕국 국왕이  
주체 83 (1994) 년  
4월 5일에 드린  
은그릇



김일성주석은 미국의  
전국과 운명을 대표했던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3대대통령을 다 합친것  
보다 더 위대한 분이  
시다.  
김일성주석은 세계의  
전국자들과 태양신을  
다 합친것보다 더 위대한 인간운명의 태양신  
이라고 나는 의심없이 말한다.

지미 카터  
주체83(1994)년 6월



미국 전 대통령부부가 주체83  
(1994)년 6월 17일에 드린  
동장식접시





# 증산의 동음 높이 올리는 발전설비생산기지

가공부문의 노동자들은 합리적인 가공방법들을 받아들여 발전설비생산을 높이고있다.



굴지의 발전설비제작기지인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 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어랑천발전소와 단천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발전소들의 건설을 다그쳐 나라의 전력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서 기업소가 맡고있는 임무를 생산자대중 속에 깊이 인식시켜 그들의 창조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모든 직장, 작업반들에서 집단적혁신과 경쟁열풍이 세차게 이는 속에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생산에 적극 도입되고있다.

소재부문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합리적인 조형방법을 받아들여 주강품의 질을 훨씬 개선하였다.

제관부문에서도 자동용접공정을 확립하고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더 많은 제관품들을 생산하고있다.

발전설비1가공직장과 대형기계직장을 비롯한 가공부문에서는 CNC화된 가공설비들의 장치와 조종프로그램을 갱신하여 그 성능을 개선하는것과 함께 지구, 장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의 속도와 질을 보장하고있다.

대상설비조립직장을 비롯한 조립부문의

일군들과 노동자들도 새 동력기지들의 완공을 건설자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치고 공정간 맞물림을 짜고 들어 설비조립에서 련일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 련합기업소에서는 설계와 가공기술을 혁신하는데 기술발전의 중심고리를 두고 발전설비를 현대적으로 설계제작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는것과 함께 여러 직장의 중요가공설비들을 CNC화하기 위한 사업도 줄기차게 내밀고있다.

사진 리철진, 글 최의림







# 함경남도 과학기술도서관

함흥시의 동흥산기슭에 함경남도과학기술도서관이 새로 일떠섰다.

다기능화된 과학기술도서관은 도안의 과학자, 기술자들뿐아니라 각계층 근로자들과 학생들이 최신과학기술을 원만히 습득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추고있다.

평양의 과학기술전당, 인민대학습당 그리고 도안의 모든 과학연구단위와 교육기관, 공장, 기업소 등과 컴퓨터망으로 련결된 이곳으로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컴퓨터를 통해 열람봉사와 문답봉사도 받고 여러 대학들의 원격강의도 받고있다.

전자열람실, 전문가열람실, 전자열람홀, 학술토론회실, 학술토론회장을 비롯한 도서관의 곳곳마다에서 최첨단돌파의 포부를 안고 과학기술지식을 련마해가고있는 지식인들과 청년대학생들의 진지한 모습을 볼수 있다.

그리고 자기 공장, 기업소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더 좋은 설비와 제품들을 만들어낼 열의에 넘쳐 새로운 과학기술자료들을 탐독하는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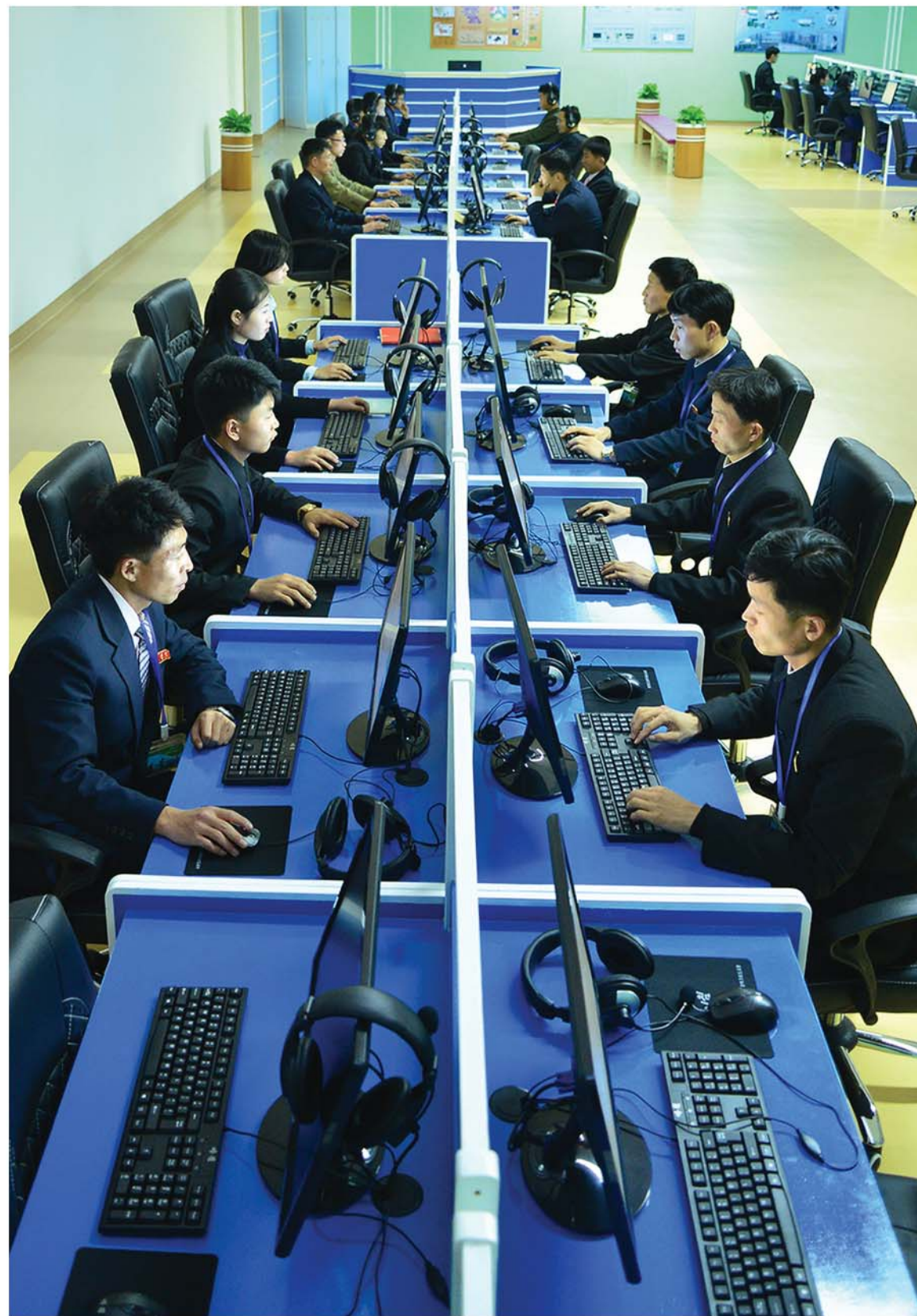
지적제품전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도 언제나 그칠새 없다.

소학교와 초급, 고급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생열람실에서도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있다.

이곳에는 학령전어린이들을 위한 아동열람실, 신문잡지열람구역과 새책열람실 그리고 책방도 꾸려져있다.

함흥시민들은 도과학기술도서관이 일떠섬으로써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되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사진 고승혁, 글 김선경



전자열람실



학술토론회장



외국어강습실



새책열람실



학생열람실과 아동열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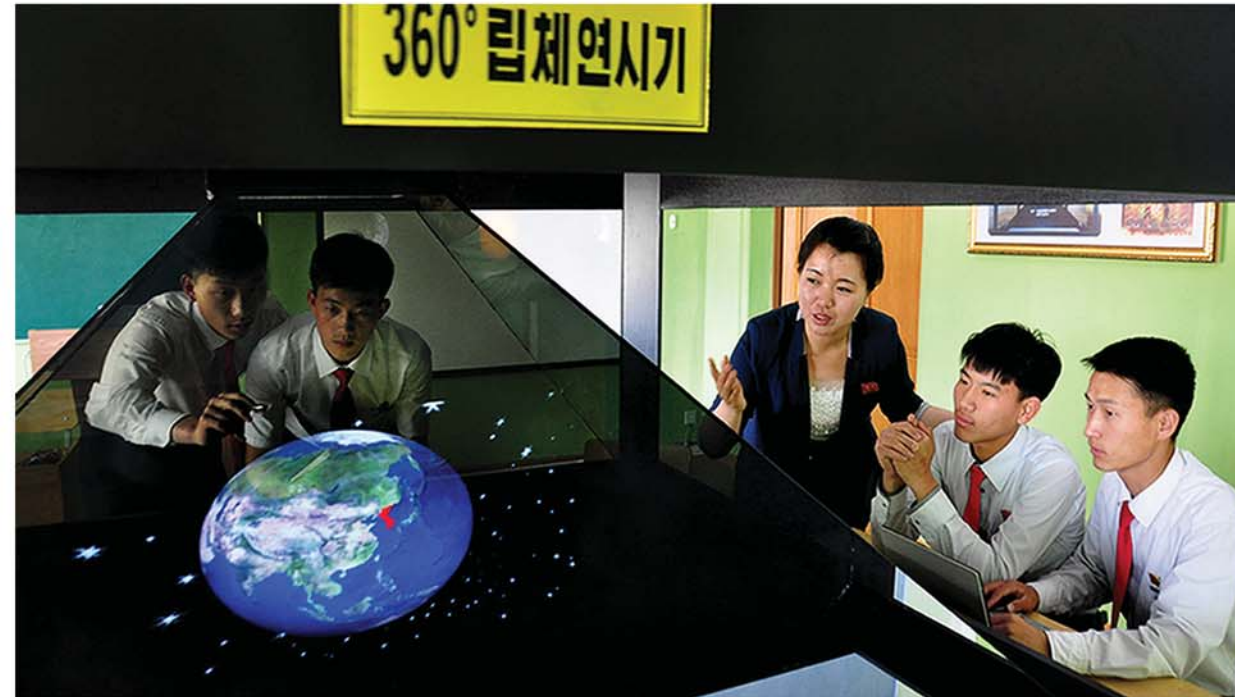
# 김형직사범대학

평양시 동대원구역에 김형직사범대학이 자리잡고있다.  
 일제침략자들을 쳐물리치고 조국해방(1945. 8. 15.)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건국사업의 초기부터 교육자들을 양성하는 대학을 세우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하여 주체35(1946)년 10월 1일 조선의 첫 교원양성기지인 평양교원대학이 창립되었으며 주체37(1948)년 10월에는 4년제의 평양사범대학으로 발전하였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1950. 6-1953. 7.)시기에도 대학은 평안북도 피현군 총렬리에 자리를 옮기고 조국의 미래를 키워갈 교육자들을 양성하였다.

그후 평양제1사범대학으로 불리우던 대학은 주체64(1975)년 3월 조선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혁명적인 교육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그의 존함을 모시였다.  
 창립후 중등학교교원양성기지로서의 사명을 지니였던 대학은 주체69(1980)년 6월에 전국의 교원양성부분 대학교원들을 키워내는 대학으로 개편되었으며 주체76(1987)년 9월에는 전문가자격을 가진 대학

교원들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발전하였다.  
 김형직사범대학 정문의 대학현판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주체83(1994)년에 김형직선생님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쓰신 친필을 새긴것이다.  
 오늘 김형직사범대학은 교원양성부분 대학들의 학술, 정보, 자료봉사, 원격교육의 중심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후보원사, 교수, 박사들을 비롯한 수백명의 학위학직소유자들이

대학의 교수진영을 이루고있다.  
 전국적인 규모에서 선발된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며 자기의 희망과 소질에 따라 교육과학대학과 철학, 역사학, 수학, 물리학 등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계통의 학부들에서 지식의 탐을 쌓아가고 있다.  
 최근년간 대학에서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경제과학부문의 새 과목들이 개척되고 수천건의 전자강의안들이 새롭게 작성되는것과 함께 효과적인 교육지원프로그램들이 수많은 개발되었다.  
 그리고 대학안의 모든 교실들이 다기능교실로 변모되고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는 새로운 교수방법들이 부단히 도입되어 수강자들의



대학에서는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을 끊임없이 혁신하여 학생들을 능력있는 교육자들로 키워내고있다.





실력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자연과학연구소를 비롯하여 그즈한 물질기술적토대와 쟁쟁한 두뇌진들을 갖추고있는 대학안의 과학연구집단들속에서 과학의 최첨단을 돌파하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성과들이 계속 이룩되고있다.

김형직사범대학의 졸업생들속에서는 지난 기간 김일성상계관인, 공화국영웅, 로력영웅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이름있는 교육자, 과학자

들과 인민예술가, 인민배우, 인민체육인 등이 배출되였다.

나라의 교육발전에 빛나는 자욱을 새겨온 김형직사범대학의 긍지 높은 연혁은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해나가려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의 일관한 과학중시, 교육중시로선과 그 구현을 위한 장구한 노력과 더불어 오늘도 즐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문광봉



예능교육에도 힘을 넣고있다.



# 조종천선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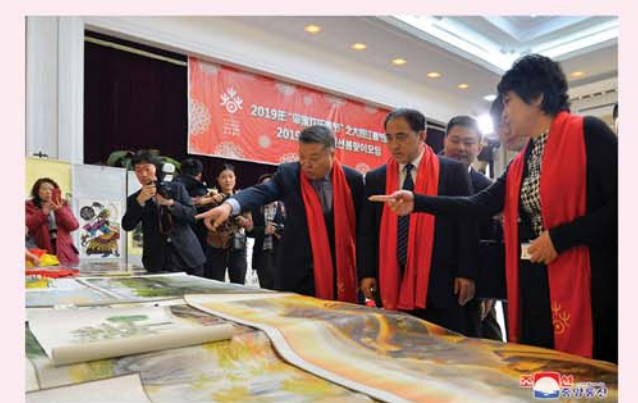
사진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첫 중국방문 1돐에 즈음한 중국예술인들의 조종천선봄맞이종합공연이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조종천선협회와 중국 문화 및 관광부, 주조 중국대사관의 공동명의로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되였다.



2019년 조종천선봄맞이모임이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조종천선협회와 중국 문화 및 관광부, 주조 중국대사관의 공동명의로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화 《소나무와 참매》

## 인민예술가 리경남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 화가인 리경남은 매력적이고 독특한 필치로 민족적 향취가 짙은 작품들을 수많은 내놓은 화가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있다.

주체29(1940)년 평안북도 정주군(당시)에서 평범한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난 그는 20살이 넘도록 미술의 세계와는 인연이 없는듯 싶었다.

하지만 유년시절부터 무엇이든 힘들어도 자기 손으로 해내고야마는 이악한 기질과 사물 현상에 대한 높은 관찰력, 섬세한 손재간을 가지고있어 주변사람들을 놀래우곤 하였다.

주체52(1963)년에 리경남은 친척의 권고에 따라 미술을 배우리라 마음먹고 평양미술대학(당시) 회화학부 유화과에 입학하였다.

대체로 어릴적부터 그림그리기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 자기의 기량을 꾸준히 련마해오는 사람들이 화가들인만큼 리경남은 분명 지망을 잘못 선택한것 같았다.

그러나 미술의 초보도 모르는 이 생동이는 대학의 교원들은 물론 나어린 동급생들에게서 까지 허심하게 배우며 미술의 높은 경지로 한걸음한걸음 오르기 시작하였다.



대학기간 그에게는 일요일과 명절, 방학기간이 거의나 없었다.

리경남의 무서운 탐구심과 열정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스리질줄 몰랐다.

유화를 전공했던 그가 조선화에로 방향을 전환하여서도 좋은 작품들을 내놓을수 있는 비결은 다름아닌 노력이였다.

하여 주체74(1985)년에 공훈예술가칭호를, 주체86(1997)년에는 인민예술가칭호를 수여받았다.

대체로 화가들은 대표작으로 크게 이름을 날리면 인차 개성이 고착되다지만 리경남은 성공을 분기점으로 또다시 분발하여 새롭고 독특한 경지를 부단히 개척하여왔다.

예술살을 넘으면서 그의 창작활동은 더욱 원숙해졌다.

리경남은 《겨울》, 《묘향산의 상원동》, 《모란봉의 아침》, 《사철 푸름을 변치않는 소나무》, 《보통강의 겨울》 등과 같은 훌륭한 작품들을 련속 내놓아 전문가들과 미술

애호가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의 작품들에서 이채를 띠는것은 소나무와 까치, 감 등 조선인민의 생활과 친근한 대상들을 특색있게 잘 형상한것이다.

주체79(1990)년 10월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진행된 제12차 국제수채화전람회에서는 그가 창작한 조선화 《백두산》에 특등상을 수여하였다.

주체94(2005)년과 주체100(2011)년에는 국내외에서 그의 개인미술전람회가 진행되었다.

리경남은 미술계에서 그림, 서예, 도장기술을 완벽하게 겸비한 화가인것으로 하여 더욱 존경을 받고있다.

《숫눈길을 가라. 그 길에는 반드시 뚜렷한 자욱이 새겨지기 마련이다.》

이것은 오늘날도 작품창작을 위한 사색과 탐구의 길을 곳곳이 걸고있는 리경남의 좌우명이다.

사진 최원철, 글 강수정



조선화 《초소의 감》



조선화 《보통강의 겨울》



# 조선의 명산 - 칠보산



칠보산은 웅장하면서도 기묘하고 특이한 자연환경을 이루고있어 예로부터 《함북금강》으로 널리 알려진 조선의 6대명산중의 하나이다.

함경북도 명천군과 화대군, 명간군의 넓은 지역과 어랑군의 일부 지역을 포괄하고있는 칠보산의 면적은 수백km에 달한다.

칠보산은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인 높고낮은

산발들과 좁고 깊은 계곡들, 골짜기들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 장쾌한 폭포와 담소, 바다가의 기암절벽과 바위섬들 등으로 사철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고있다. 특히 가을철의 경치도 좋지만 하얀 눈세계가 펼쳐진 겨울철의 풍경은 그 어디에도 견줄수 없을만큼 황홀하다.

독특한 산악미와 계곡미, 바다경치를 계절에 따라 펼쳐보이는 명승지 칠보산은 지역별 특성

과 탐승로정에 따라 크게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지역으로 나뉘여있다.

칠보산은 식물상도 매우 다양하다.

북부고산지대와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포함한 1 300여종의 식물이 분포되어있으며 그중에는 산삼과 삼지구엽초, 오미자를 비롯한 약용식물도 적지 않다. 특히 칠보산에서 많이 나는 송이버섯은 특이한 맛과 냄새를

가지고있어 버섯가운데서도 손꼽힌다.

이곳에는 곰, 노루, 너구리, 오소리를 비롯하여 80여종의 산짐승류와 수리부엉이, 티티새, 찌르레기, 피플새 등 수많은 조류들이 있으며 해칠보의 보존 앞바다에는 명태를 비롯한 물고기들과 게, 문어, 성게, 조개, 미역 등 여러 가지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칠보산은 명승지로서뿐만아니라 조선인민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유적유물들이 많은것으로 하여 더욱 유명하다.

칠보산일대에서는 원시 및 고대시기의 유적 유물들과 중세 조선인민의 슬기로운 재능과 지혜, 반침략투쟁사를 보여주는 읍성과 산성, 건물과 비 등이 적지 않게 발굴되어 전해져오고있다. 명천읍성과 채덕산성 등 여러 산성들, 개심사를 비롯한 불교사찰들과 그 터자리들,

새로운 령길을 개척한 사람의 공적을 기념하여 세운 신도령비 등은 대표적인 력사유적이다.

칠보산지구는 주체103(2014)년에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되었다.

사진 김진호, 리 춘, 홍 훈,  
진영호, 김용남, 김학명  
글 김충복



내칠보의 농부바위



외칠보 관음봉의 해불바위



해칠보의 달문





승선대에서 바라본 내칠보의 《눈산》들



배바위와 사공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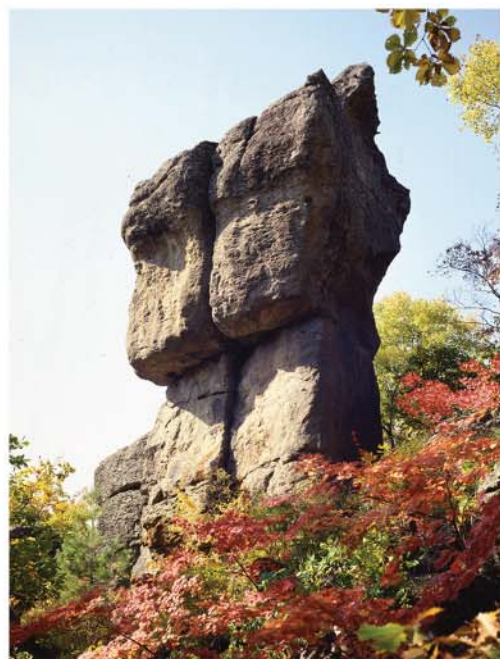
흰바위



강선문



부부바위



승전탑



칠보산에는 송이버섯을 비롯하여 1 300여종의 식물들이 자라고있다.



운만대의 불





## 민족기악을 장려한다

새해를 맞으며 진행된 학생소년들의 주체 108(2019)년 설맞이공연 《축복의 설날아 내려라》에서는 조선의 민족악기들을 능란하게

연주하는 청소년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이 자주 펼쳐졌다. 어은금독병창 《흰눈송이아》, 장고와 무용

《웃음넘친 내 나라의 자랑이야》, 민족기악과 노래 《열두달 따는 열매》, 고음저대독주 《우리도 소년장수》...

이 출연자들중에는 평양시의 종합적인 청소년과외교양기지의 하나인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민족기악소조원들이 적지 않다.

과학기술과 체육 및 예능부문의 수많은 소조들이 있는 궁전에는 죽관악기소조, 대해금소조, 장새납소조, 가야금소조, 장고소조를 비롯한 민족기악소조들도 있다.

매일같이 수많은 학생들이 하루수업을 마치고 이 소조들에 찾아와 자기의 취미와 소질에 따라 선택한 민족악기의 주변들을 열심히 익혀가고있다.

그들의 소조활동은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을 나오고 풍부한 무대 및 교수경험을 가지고있는 지도교원들의 세심한 관심속에 진행되고있다.

매 소조원들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구체적인 교수방법을 작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집체적 지도와 함께 개별지도에 많은 힘을 넣고있는 여러 민족기악소조의 지도교원들이다.

대해금소조 지도교원 계학철은 소조원들이 전공악기를 능숙하게 다루도록 하는것과 함께 한가지이상의 악기들을 더 배우도록 이끌고 있다.

하여 소조원들속에서는 재능있는 어은금독주가들도 많이 나와 소조의 이름을 더욱 떨치고있다.

배금숙을 비롯한 가야금소조의 지도교원들도 소조원들이 조선의 고유한 민족악기를 배운다는 긍지감을 지니고 자신들의 재능을 끊임없이 련마해가도록 모든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오늘도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여러 민족기악소조원들은 선조들이 창조한 소중한 재부, 민족악기들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민족예술의 전통을 이어가는 훌륭한 연주가가 될 희망을 꽃피워가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문진유



장새납소조



죽관악기소조



어은금소조



장고소조



가야금소조





## 힘겨운 소녀들

지난해 12월말에 발표된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들의 명단에는 기관차체육단의 여자력기선수들인 림정심, 림은심자매의 이름이 포함되어있었다.

지난해까지 림정심은 4차, 림은심은 2차에 걸쳐 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되었지만 자매가 함께 뽐하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평양시 만경대구역의 한 평범한 노동자집안

에서 태어난 자매는 어릴적부터 남달리 힘이 세서 사내아이들도 당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래서 처녀시절 교예체조선수였던 어머니는 10살나던 딸딸 정심을 가까이에 있는 청춘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 여자력기 69kg급경기와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여자력기 75kg급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로력영웅 인민체육인 림정심(언니)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 여자력기 69kg급경기에서 1등을 한 공훈체육인 림은심(동생)

거리 력기경기관 청소년체육학교(당시)로 데려갔다.

력기종목을 하는데 필요한 힘과 속도, 유연성을 다 갖춘 정심의 모습은 지도교원의 첫눈에 들었다.

2년후에는 9살의 은심이가 언니의 뒤를 따랐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면 이들은 매일 이곳에 와서 지도교원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다양한 기술동작들을 열심히 익혀나갔다.

자매는 소년급경기들에서부터 새 기록을 수립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정심이는 14살때 벌써 국내청년선수권대회의 여자력기 48kg급경기에 나가 단연 1등을 하여 전문가들을 놀래웠다.

그후 그들은 기관차체육단의 선수가 되었다. 감독도 그들의 지도교원인 김춘희 그대로였다.

기어이 세계패권자가 될 목표를 내세운 자매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김춘희감독의 지도를 받고있다.

먼저 국가대표선수로 된 림정심은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그후 아시아 및 세계력기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련속 명성을 떨치고 주체105(2016)년에는 2중 올림픽금메달수상자가 되었다.

언니의 성과는 동생 림은심의 승벽심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해에 진행된 세계청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쟁취한 그는 제29차 여름철 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들에서도 우승하여 자기의 모습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자매는 지난해에 진행된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 함께 참가하였으며 각각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평양시민들이 《금컵아빠트》라고 부르는 보통강반의 다층살림집에 자리잡고있는 자매의 집에는 지금까지 이들이 획득한 70여개의 컵과 메달들이 보관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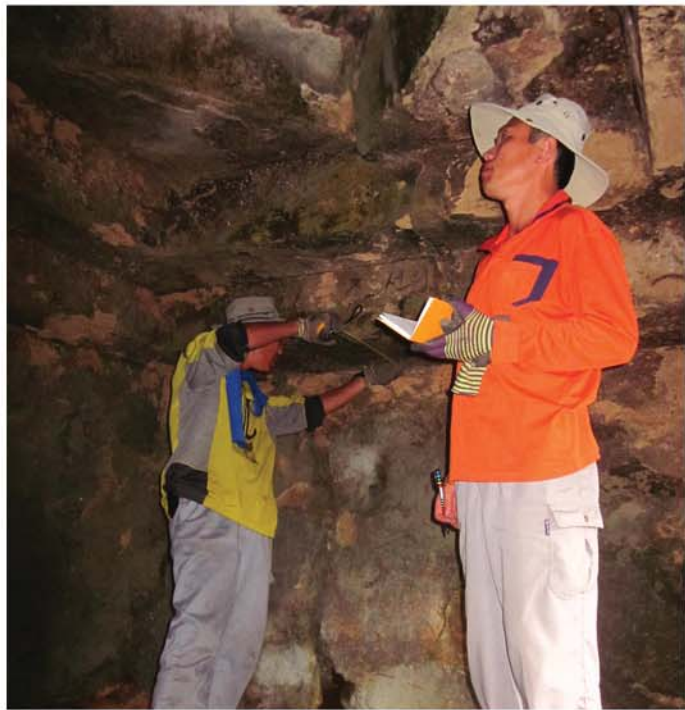
앞으로 그 수는 자신들의 기술을 부단히 세련시키며 확고한 전성기를 펼치여가고있는 주인공들에 의하여 계속 늘어날것이다.

사진 리철진, 글 박병훈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림정심은 여자력기 75kg급경기에서, 림은심은 여자력기 69kg급경기에서 우승을 하였다.





프랑스국립극동연구원 연구사들과 개성남대문에 대한 공동발굴을 진행하고있다.



발굴된 유적유물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있는 유적발굴대성원들

# 민족의 재보를 찾아

선조들이 이룩한 문화의 자취를 찾아 전국 각지를 누비며 성실한 수고를 바쳐가는 사람들 속에는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유적발굴대의 성원들도 있다.

지난 기간 이들은 태성리3호무덤, 대성동 벽화무덤 등 여러 유적들을 발굴하면서 1만점 이상에 달하는 유물들을 고증하여 인류력사의 려명기로부터 독자적인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여온 조선민족의 유구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주체106(2017)년 5월 유적발굴대는 평양시

삼석구역 장수원동에서 새로운 발굴사업에 착수하였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대성구역 안학동에 고구려(B. C. 277년-A. D. 668년)시기의 왕궁터인 안학궁유적이 있고 삼석일대에서 지난 시기 여러 고구려벽화무덤들이 발굴된 사실이 대장을 비롯한 발굴대성원들의 새로운 호기심을 유발시켰던것이다.

이 일대를 몇번이나 살살이 훑던 끝에 그들은 소재지마을로부터 동북쪽으로 2km정도 떨어진 야산의 동쪽경사면에서 고분으로 추정되

는 대상을 찾아낼수 있었다.

발굴이 시작되었다.

장마철의 습기와 무더위, 겨울철의 혹한속에서도 줄기차게 진척된 발굴과정에 마침내 유적은 자기의 실체를 드러냈다.

오랜 세월속에 무덤의 많은 부분이 파손되었지만 안칸의 북쪽벽에 그린 현무는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바닥을 정리하는 과정에도 많은 벽화조각들과 관대흔적이 나졌다.

그들은 지체없이 유물들에 대한 고증사업에 달라붙었다.

발굴한 무덤의 구조와 벽화에 대한 수십번의 컴퓨터화상처리 및 통계분석, 문헌자료들과의 대비적고찰 ...

드디어 그들은 고구려시기의 벽화무덤들이 삼석구역의 훨씬 더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있다는것을 증명하는것과 함께 고구려시기의 무덤형식들과 그 변천과정을 과학적으로 밝혔다.

오늘도 그들은 민족의 재보를 찾기 위한 길을 쉬임없이 걷고있다.

사진 최명진, 글 최익림



개성남대문에서 나온 유물들



무덤간바닥



무덤간천정



무덤간북벽



평양시 삼석구역 장수원동에서 발굴된 고구려벽화무덤



